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돌아온 '헤이헤이헤이'
'시즌2' 신설 내달 방영

2003년 신동엽·김원희 콤비의 진행으로 인기를 모았던 SBS '헤이헤이헤이'가 두 번째 시즌으로 내달 돌아온다.



SBS는 가을 개편을 맞아 목요일 밤 11시 '헤이헤이헤이 시즌2'를 신설하고 원년 멤버인 신동엽·김원희에 이경실, 현영, 이종수를 투입한다.

진행자들은 하나님의 줄거리로 10회 이상을 연결하는 '미니시리즈 콩트' 코너를 선보여 예전의 인기 회복에 나선다.

'헤이헤이헤이 시즌2'는 내달 9일 첫 방송되며 해당 시간에 편성돼 있던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웃음을 찾는 사람들'은 일요일 저녁으로 시간대를 옮긴다.



"음악 낙원을 만들겠다"는 JJMP의 김미선(오른쪽)씨와 박지훈씨. 오른쪽은 대학가요제 대상을 수상한 후 기뻐하는 모습.

**음악파일 지워져 포기할 뻔
밤샘 작업 끝 마감 5분전 제출**

**뮤지컬·작곡 준비 서로 분주
이젠 연인관계 넘어 동반자로**

호흡 척척 '21살 음악연인'

MBC 대학가요제 대상 혼성듀엣 'JJMP'

박지훈씨와 광주출신 김미선씨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21살 이야기'라는 곡으로 올해 대학가요제 대상을 수상한 혼성그룹 JJMP(제이제이엠피)의 동갑내기 연인 김미선(21·경희대 실용음악과 2), 박지훈(21·경희대 실용음악과 2)씨는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며 겸손해 했다. 그룹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김씨는 광주 지역 출신으로 고등학교 (대성여고)까지 광주에서 자라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서울로 진학했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끼가 많아 주위 사람들에게 '가수 하라'는 말을 곧잘 들었다는 김씨는 2002 광주 MBC '노래 열전' 연말 대상수상, 전국 고등학생 팝송 페스티벌 대상 수상 등 일찍부터 실력을 발휘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팬클럽을 조직했고 현재 다음 카페(<http://cafe.daum.net/4everDIVA>)에 운영중인 JJMP의 팬클럽 역시 김씨의 친구들이 2004년부터 관리해 오던 것이다.

"가장 저를 믿어주는 팬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김미선)

JJMP는 멤버 두 사람의 공통적인 이니셜 J와 뮤직파라이스(music paradise)를 합한 말로 '두 멤버가 만나 음악 천국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팬들 사이에서는 '썸프'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대학가요제를 준비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한

지 씨와 박 씨는 그만큼 호흡도 척척 맞는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고, 갈등도 겪었지만 둘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다. 지금은 연인 관계를 뛰어 넘어 서로를 음악적 동반자라고 말한다.

"대학 가요제 미감 전날 아써 작업한 음악 파일을 날렸어요. 지훈이에게 '어차피 너는 군대 가고 나는 그 사이에 졸업해야 하니까 그냥 포기하자'고 말했어요. 자포자기 상태였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을 새워서 다음날 오후 5시 55분에 제출했죠. 미감이 6시였는데 이슬아슬했어요.(웃음)"

수상의 기쁨을 즐길 새도 없이 바로 새로운 작업을 시작한 JJMP는 요즘 '따로 또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 보컬리스트인 김 씨는 다음달 24일 공

개되는 뮤지컬 '황진이'에서 '유화'역을 맡아 맹연습을 하고 있고, 박 씨는 작곡에 한창이다.

"대학 가요제에 함께 출연했던 '솔라임시티'라는 그룹과 함께 합창풍의 프로젝트 곡을 준비하고 있어요."(박지훈)

서로 함께 작업해온 지도 1년 4개월. 두 사람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미선이는 정말 노력파예요. 음악적인 욕심이 많아서 제가 도움을 받을 때가 훨씬 많죠. 무엇보다 학비도 본인이 벌어서 내고, 부모님께 용돈까지 드릴 정도로 효녀예요."

"지훈이는 신기념 배짱이 같아요. 여름에 놀다가 겨울에 굽어 죽기보다는 겨울에 콘서트 열어서 대박이 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무조건 열중하는 스타일이죠."

두 사람은 입을 모아 "대학 가요제라는 첫 번째 관문을 이제 막 통과했으니, 앞으로 다양한 공연에서 팬들과 만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배우 허준호, 뮤지컬 제작자 변신

'해어화' 내년 무대 올려

배우 허준호가 이번엔 뮤지컬 제작자로 나선다.

기생을 소재로 한 대형 창작 뮤지컬 '해어화'를 내년 무대에 올리는 것.

'해어화'는 2004년 허준호가 선친의 이름을 따 세운 장강엔터테인먼트의 첫 작품으로 드라마로 동시에 제작된다. 장강엔터테인먼트는 '해어화'에 이어 뮤지컬 '실버타운'·'고구려사'·'구미호'도 내놓을 예정이다.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뜻의 '해어화'

일파(一派) 기생을 일컫는다. '해어화'는 4명의 여주인공이 기생학교에 들어가 조선 최고의 기생으로 거듭나는 성공기를 그린 뮤지컬 사극이다.

작품의 제작비는 35억원에 달한다. 허준호의 부담감이 큰 게 사실.

"남들은 미친짓이라고도 한다. 투자를 다 받지 못하면 밤 무대를 뛰어서라도 돈을 마련하겠다(웃음). '해어화'는 외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음악도 전통 리듬과 선율을 서양의 음계를 혼합한 퓨전 형식이다. 뮤지컬 음악감독으로 유명한 박갈린 씨가 극작과 음악감독을 맡고, 대중음악 작곡가 하광

훈 씨가 곡을 만든다. 5년안에 뮤지컬 전용 극장도 마련하고 싶다."

허준호는 선친의 이름을 따 제작사를 설립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 "아버지와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항상 연습하고 준비하는 배우였던 아버지를 본받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담았다. 아버지로서는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준 적 없는 분이었지만, 배우로서는 서재에서 어린 나를 불잡고 대사 연습을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

허준호는 12월부터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FURSYS 가 만든 의자는 다릅니다

파시스와 축식팀 노하우로 만든 청년 메카니즘의 천시리즈



파시스남광주전시장

(062) 225-5100



국내기술, 국제경쟁 전장에서

결혼정보 모모

국내외 결혼정보 전문업체



전화 (082) 223-5949
010-9944-0682